

□ 권영길 초청 대학생간담회를 다녀와서

진보정당건설 통해 정치 선진국 이룩할 터

21세기 복지예산안 20% 확보 가능

한달 보름여 남짓 남은 대선. 각각의 대선 주자들은 영향력 확보를 위해 자신의 목에 핏대를 세우기에 여념이 없다. 대부분의 후보들은 언론플레이나 대선 후보토론회를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고 있지만 권영길(국민승리 21)후보는 기존 정치권 후보들과는 달리 군소후보로서의 대접만을 받고 있다. 타 후보에 비해 여론지지도가 현저히 낮다는 이유를 들어 기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밖에 있는 권후보. 권후보의 성향을 살펴보면 타 후보들과는 다른 면모를 볼 수 있다. 진보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권후보에 대한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해야만 하는 당위성이 존재한다. 이에 대학생 유권자들이 올바른 시각으로 대선 후보를 바라볼 수 있도록 전국대학언론사 합동주최로 지난 30일 성균관대학교에서 권후보를 초청해 포럼을 진행한 바 있다. 우리신문사에서 이번 포럼을 정리해 보았다. <편집자>

국연합이 참가한 국민승리21을 선거 본부로 하고 있지만 그의 갈 길은 멀기만 하다. TV나 신문에서 권후보에 대한 보도나 정책에 대한 기사를 찾기란 어려운 일이다. 충분한 비전제시가 가능한 대통령후보가 생각을 알릴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현재 언론의 현실인 것이다. 폐널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초청회는 전국대학기자연합(전대기련)서강대후보사김영실편집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폐널토론회는 김종백 대학언론포럼대표(성균관대 91)가, 폐널은 김기영 전대기련 동국대후보사편집장와 5인이 맡아 진행하였다.

1. 대학교육

현재 대학이 겪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현실적으로 살펴본다면 취업이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다. 하지만 현재의 취업난은 인위적인 문제이다. 바로 기업주 중심의 신 자유·신보수주의적인 바람은 기업을 그들의 의도대로 만들고 있다. 기성언론과 정부의 어떠한 정책이 대학생의 취업문제를 부각시켰는가
정리해고의 영향력도 있으나 언론에서 실제이상으로 사건을 포장한 것이다. 대체별 중심의 기업구조 또한 문제이다. 한국경제 위기상황의 원인인 대기업을 해체하고, 중소기업육성, 다품종 소량생산 중심의 경제 구조 재조정 정책을 펴야한다.

국민승리 21의 출범식자료집에 획기적인 학제개편 계획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무엇인가
지금의 상황으로 대학교육이 나아간다면 대학은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 아닌 취업을 위한 훈련원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유아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통해 진정한 학문의 길을 더 줄 때 올바른 교육이 가능할 것이다.

TV 토론회에서 권후보는 항상 제외되어왔다. 이는 대선 주자들에게 따라 토론의 자격요건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왔기 때문이다. 첫번째는 국정운영에 참여한 적이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정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 세 번째는 지지도 10% 이상의 사람으로 바뀌어 왔지만 권후보에게 해당되는 요건은 전무하다. 따라서 이번 포럼에서는 기존 후보에 비해 진보성이 강한 권후보를 초청해 대권에 대한 도전과 그가 내세우고 있는 주장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두었다.

권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첫 순가락에 배부를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단지 앞으로의 커다란 계획의 한 과정을 밟아간다는 생각이다. 바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진보정당 건설이라는 커다란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이번 대선을 그 첫 단 계로 준비하려는 것이다. 민주노동과 진

□ 진보진영, 정치의 새 지평 열수 있는가

노동자, 지식인 중심의 정치세력화



▲진보진영내 국민후보 논의는 노동운동으로 인지도가 높고 득표력 있는 권영길위원장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독자영역구축이라는 최종적 입장을 취한 진보진영이 이번 대선에서 할수 있는 일은 국민들 정서 속에서 정치적 주제로 인정받는 일이다. 구대의연한 정치형태는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 민주운동진영도 이러한 상황을 간파할수 없었을 것이며 이에 해결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국민후보', 즉 권영길후보의 추대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권후보의 출마만으로는 정치의 새지평을 열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면서 우리는 진보진영의 대표자격인 권영길후보의 주제연설을 통한 진보진영의 개혁가능성을 점검해보려한다. 지난 10월30일 열린 '권영길후보 초청



▲지난 10월30일 성균관대 유원회관에서 열린 '권영길 초청 대학생 간담회'에서 권후보는 진보진영의 사회개혁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2. 언론 민주주의

지난 10월 29일 서울 시내 대학가 사회과학서점이 이적표현을 판매현의로 침탈 당했는데 이에대한 생각은
이의 법적 근거인 국가보안법은 당연히 철폐되어야한다. 국민승리 21에서 대선 주자를 낸 커다란 이유중의 하나가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여 진보적인 세력을 육성하는데 있다. 이러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수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고있는 상황이다.

국민승리 21이 표를 의식해 색깔론을 의도적으로 피한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데있어서 일정부부분의 오류가 있었

다고 생각한다. 색깔론에 얽매이지 않고 전국 어느 곳에서나 할말은 한다.

3. 대선과 국민승리21

국민승리21의 내세우는 정책과 다른 당과의 차별점은
국민승리21을 제외한 다른 당에서는 전노사면을 주장하고 있으며, 국민회의는 김현철을 석방하자는 이야기도 하고 있다. 또한 현 단계에서 다른당은 사회복지실시를 외면하고 있으나, 국민승리21은 적극적인 사회복지실시를 강력히 주장한다.

4. 국제경제

지난 총파업시 호주노동자와 연대파업

을 제안받았으나 거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다면 국민승리21에서 추구하는 국제연대는 무엇인가

제안을 거부한 적이 없다. 실제로 접촉한 사람은 나뿐이다. 연대파업을 거부했다고 한 것은 왜곡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의를 해온 것이 아니었다.

5. 통일

중국과 홍콩에서 현재 1국가 2체제가 별무리 없이 상존하고 있다. 연방제 통일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기본적으로 연방제 통일에 찬성하는 바이며 연방제 정신이 현실에 있어서 가장 적절한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통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남한 내에서 통일을 원하는 사람을 끌어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감정, 계층차별이 없어져야 하고 보수적인 사람들을 끌어내는 등의 의식의 발전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통일논의는 공허한것이 될것이다.

6. 복지 환경

21세기 사회복지 예산안을 선진국의 5%보다도 훨씬 높은 20%로 정하고 있는데 실현 가능하다고 보는가

어렵지 않다. 일본과 미국의 복지정책을 모델로 삼고 있으며, 그들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는데 힘쓰고 있다. 재원마련의 방법으로는 우리 나라 경제의 가장 압적인 존재인 사채시장을 발굴, 토지공개념 도입으로 부동산 투기를 없애며, 국방비의 효율적 사용, 내년 전체예산안의 70조 원중 합리적 조정을 통한다면 5조원을 더 절약할 수 있다. 따라서 복지예산 20% 확보는 어렵지 않다고 본다.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환경문제가 경제에 종속되어 있어 올바른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경제에 종속되지 않는 정책이 필요하다. 환경문제는 경제보다 우선되거나 독립된 하나의 정책으로 보아야 한다. <정리: 최현일 기자>

사회당신

국민승리 21 정치정책토론회 개최

국민승리 21은 오는 13일 정책 수립과 의견 수렴을 위한 정치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종로성당 3층 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권력재편과 민주주의에 대한 주제를 다룬다.

이번 토론회는 손호철(서강대 정치학)교수가 주제발표를 하며 황태연(동국대 정치외교학)교수, 손혁재(참여연대)씨 등이 토론자로 참가할 예정이다.

단국대 총학 간부 구속

단국대 천안캠퍼스 유종성(전자4)씨등 총학간부 9명이 경찰에 의해 지난 28일 국가보안법 아적단체 구성, 가입 혐의로 구속되었다.

경찰은 유씨 등이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인 '민족해방 민주민주주의 혁명'을 견지하여 북한 방송을 청취, 주체사상을 학습하고 파출소 타격 등 각종시위를 주도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남한 변혁운동의 성격임무' 등 1백 34종, 4백 10점의 문건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덕성여대 학부제 철회 반박

덕성여대는 학부제 철회의 구체적 이유를 교육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98학년도 입시요강을 97학년도 입시요강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는 입장의 교육부 공문을 받았다.

보고기한이 10월 30일까지로 되어있는 교육부 공문을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이 지난 30일 발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권순경총장직무대리인의 이름으로 발표된 학부제 전면 철회는 번복되었다. 이에 덕성여대 교수와 학생들은 이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인문사회과학서점 압수수색

서울지역 인문사회과학서점들이 지난 29일 오후 12시경부터 경찰에 의해 압수수색을 당했다.

연세대앞 '오늘의 책', 고려대앞 '장백', 성균관대앞 '논장', 서강대앞 '서강인'의 서점 대표자들이 서점과 자택 등에서 서울경찰청 남영동 대공본실로 강제연행되었으나 상당수의 책들도 압수당했다. 이에 서울지역 인문사회과학서점모임은 출판계와 공동으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항공대생 88명 연행

항공대학생들은 인하대와의 통합을 반대, 대한항공 조양호사장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지난 28일 3시30분 명동 한진해운센터에서 집결하였다.

학생들은 항의서한을 전달기 위해 대한항공 빌딩에 기습적으로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4명의 여학생을 포함한 88명의 항공대생들이 남대문 경찰서로 이동되었다.

강단시론 기사넘쳐 한주됩니다

<김용운 기자>

한국 미래사회 발전을 위한

전국대학교수협의회 결성 발기문

존경하는 전국 3만여 대학 교수님!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가 하나되는 새로운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경제는 도탄에 빠졌고 정치는 가히 무정부 상태에 이르러 혼미에 혼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개여있는 지성이 통제하지 않으면 어떤 정부도 계속 좋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제퍼슨은 역사의 회고에서 나쁜 정부는 '권력의 과다'에서 생긴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급년 12월에는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수평적 정권교체를 통한 자유민주주의 완성과 지역화합을 통한 국민역량 결집으로 국가와 민족의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 전국의 뜻있는 교수들의 의지를 모아 (가칭) "한국 미래사회 발전을 위한 전국대학교수협의회(약칭, 한미전국대학교수협의회)"를 결성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현 시국과 관련 대학 지성인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천명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대학 교수님!

언뜻 보기에 미미한 듯 보이지만 우리 대학 지성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살아있는 학혼이 거룩한 역사를 이룩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디 현 시국을 감안해 우리의 뜻에 동참해주시면 고뇌에 찬 교수들의 외침이 후세에 기록되리라 확신합니다.

1997. 11.

(가칭) 한국 미래사회 발전을 위한 전국대학교수협의회 추진 위원회

연락처: 대표전화 (02)529-6006, (02)529-0770 FAX: (02)577-3436 E-Mail: DONPARK@mail.hitel.net

행 사 내 용

- 일시: 1997년 11월 7일 오후 5시~7시
- 장소: 호텔롯데 3층 사파이어 볼룸(소공동) TEL: (02)771-1000

◆프로그래

- 등 록: 오후 4시 30분 부터
- 식전행사: 오후 5시~5시30분(30분)
"글룬(Gulnun 97)시스템 활용시범" 이인동 박사(한국 인식기술 대표)
강의교재, 보고서, 원고정리를 위한 스캔러 활용 방법 설명(S/W활인권 배부)

◆한국 미래사회 발전을 위한 전국대학교수협의회

1. 21세기 한국 교수의 역할과 사명(25분)

II. 한국 미래사회 발전을 위한 전국대학교수협의회 결성(35분)

- 정관 및 회장단 인준
- 현 정치 상황에 대한 교수들의 입장 표명
- 식후행사(15분): 작은 음악회(테너 신영조, 소프라노 윤명희)
- 만찬(1시간)

- 한미전국대학교수협의회 결성 기금 모금 참여 안내
후원회 예금 계좌
조흥은행 981-04-169810(예금주: 한미전국교수모임)

※추이: 발기인 명단은 행사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